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0년 2월 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47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새 20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번 시편(Psalm) 1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히브리서(Hebrews) 2:1-4	박경림 집사
찬 양 Anthem	“주와 함께 가리라”	찬양대
설 교 Sermon	“더욱 간절히 삼가할찌니”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새 279)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새 40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고, 세상과 구별된 신앙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회개 없는 용서와 행함 없는 믿음에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거짓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했던 다윗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로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고, 빌 2:12, 시 25: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찌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한글개역 히 2:1)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therefore, to what we have heard, so that we do not drift away.” (NIV Hebrews 2: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2 (주일)	2/3 (월)	2/4 (화)	2/5 (수)	2/6 (목)	2/7 (금)	2/8 (토)
	창34	창35,36	창37	창38	창39	창40	창41
본문	막5	막6	막7	막8	막9	막10	막11
	눅1	눅2	눅3	눅4	눅5	눅6	눅7
	롬5	롬6	롬7	롬8	롬9	롬10	롬11

수/요/찬/양/집/회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2/5 오후 7:30)	“진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안에 있노라” (민5:1-10)
토요 새벽기도회 (2/8 오전 6:30)	“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62:5-8)

지난 주일(1/26) 말씀

“아들에 관하여는”(히 1:4-14)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다분히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무엇인지? 를 말씀하고 있는데, 1)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Christ)가 되시고(히1:4-7), 2)둘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주(Lord)가 되시며(히1:8-9), 3)셋째,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영원한 심판자(Eternal Judge)가 되신다(히1:10-14)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1)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2)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3)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지선과 관심을 집중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히1:2)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들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히1:8)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